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1호 HYUNBULNEWS.COM 2025년 5월 21일(음력 4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6·3대선 불교계 정책 제안…대선 후보 '佛心잡기'

조계종, 현안 자료집 만들어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
선명상 · 전통문화 진흥 담겨
태고종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

이재명, 가장 먼저 공약 제시
김문수, 종정 성파 대종사 예방
민주당, 통도사서 현안 청취도

임은호 · 김내영 · 하성미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불교계는 현안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은 사찰과 불교 행사를 찾는 등 불심(佛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 '국민 행복' 정책 제안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불교 현안을 제안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계종은 정책 자료집에서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은 각계각층별, 명상 수준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3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 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도 정책으로 내놨다.



"한국불교 미래 100년 열어가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국불교 미래 100년을 위해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신도회 임원단, 대선 후보자 부인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김내영 기자

태고종, 정책 제안 본격화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5월 15일 총무원장 직속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전문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책기획단장에는 태고종 교육원장 재흥 스님이 선임됐고, 자문위원으로는 태고종 문화부장 월타 스님,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천우정 국회 정각회 사무국장, 김병하 국회 정각회장 보좌관, 정용준 임오경 국회의원 보좌관, 김명순 태고종 총무원장 특보가 위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국가 대소사를 앞두고 태고종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며 "비록 한시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태고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를 넘어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정책기획단은 2층 총무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첫 회의를 열고 불교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들 불심 잡기 잰걸음

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불교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을 발표하고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전통불교문화 진흥에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전통문화를 단순한 옛 유산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문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신앙 여부를 떠나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공공 영역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전통문화가 곧 국가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법과 규정만 따지기보다, 불교가 지닌 자비와 공동체 정신을 사회 전반에 녹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본부(본부장 김병주·김영배)도 통도사를 찾아 '여시아문 신수봉행(如是我聞 信受奉行) 간담회'를 개최하며 불심 잡기에 진력했다. 간담회는 민주당 불교본부와 불교위원회가 조직을 재정비한 후 처음 마련한 공식 간담회로, 불교계와의 소통 강화 및 공동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석 스님들은 사찰 방재 대책과 문화유산 제도 개선, 동물권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요구했다. 김병주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도 불교계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불교 중흥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대위 불교본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주요 교구본사와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화사 종헌종법 위반 행위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담화문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총림 해제를 가결하면서 동화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5월 13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회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 위상을 실추하는 훼불해종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임은호 기자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5월 13일 지정예고

서울 강남 봉은사가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경암 스님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학술·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생전예수재보존회는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
한 그릇에 생명을 담다
2025.06.07(토)~08(일)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주최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